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화 따른 소비자 입장

Small-Packaged Drugs and Consumer's Opinion

조윤미 /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1. 서론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지난 1999년 의약품업 과정에 참여하면서부터 의약품안전사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의약품 제조와 유통과정은 매우 정밀하며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구조는 여전히 개선과제를 많이 안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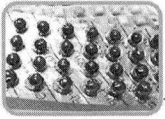
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걱정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조된 제품을 생산하며, 효과적인 유통, 보관과정을 거쳐 적정처방에 의해 조제 판매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며 특히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특성이 가진다.

의약품 소분포장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몇몇 제약업체와 협회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논의를 해 온 바 있다. 당시 논의과정에서는 500 또는 1,000정씩

포장되어 있는 기존의 의약품 포장단위를 소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문제는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제히 실시하도록 강제화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었다.

이후 2005년 10월 7일부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1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품목의 의약품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의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것(이하 생략).”이 신설되었으며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제품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중에 있으며, 입안예고에 따르면 적용대상 의약품을 “정제 및 캡셀제로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낱알모음포장으로 약국 및 병원 등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제약회사 등에서는 비용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공급형태를 낱알모음포장이 아닌 병포장 형태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의약품 소포장 검토시안

의약품 소포장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다. 우선 제약업체가 우려하는대로 생산원가의 증가 등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어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포장을 세분화 하는데 따르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의 우려도 있다. 현재 날개포장되어 판매되는 의약품에는 의약품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읽거나 숙지하지 않는 편이다. 포장만 뜯어내 약을 복용하고 그대로 버려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을 포장하여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 자원절약에 도움이 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 의약품은 대부분 약국을 통해 판매되므로 일반 수퍼 등에서 판매되는 외국의 경우보다 소분포장의 필요성이 더 적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약이 관리되고 재포장되어 판매되므로 굳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 판매하는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지적이다.

의약품의 소비행태 특성도 소분포장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처방의 경우 대부분 평균 6-7가지 약을 한데 섞어 반투명 약봉투에 한번 복용할 약을 한꺼번에 담아 조제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본회가 지난 2004년 전국 81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식이 “모든 약품이 일회용량씩 한꺼번에 포장됨” 경우로 255명 31.1%가 응답했으며 “각

일회용량씩 날개로 포장” 225 (27.6%) “치료기간에 맞추어 생산 단계에서 포장된 채 전달” 188 (23.0%) “종류별로 따로 약병 등에 담아 포장해 줌” 148 (18.1%)순으로 조사되었다.

의약품의 판매하는 약사에게는 많은 양의 의약품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재고의약품의 발생인데,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의 특성상 처방전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약품을 구비해 놓은 후 한두번 사용되고나서 그대로 유통기한을 지나치게 되며, 결국 남은 약은 고스란히 약국의 운영부담으로 남게 되며 일부 반품이 가능한 의약품은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이같은 경영부담 때문에 약사들은 강력하게 소분포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때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2. 소비자 입장

현재 소비자들은 약사에 의해 필요한 개수 만큼 나누어진 의약품을 받기 때문에 포장단위를 소분화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분포장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높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잠시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소비자와 직결된 여러 문제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개봉후약품관리 과정에서의 변질 우려 또는 장기보관에 따른 약효 저하 등이다.

실제 대부분의 의약품은 온도변화와 습기에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1,000알의 의약품은 한번 개봉을 한 이후 소진될때까지 상당한 시

일이 필요하며 보관을 유의하더라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효과저하와 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약을 조제하면서 약사가 여러 개의 약알을 만지고 꺼내고 분류하여 재 포장하게 되는데 주의를 다 한다 하더라도 피치못하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항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수량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100정 이상의 대용량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관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낳을 소지가 있게 된다.

중요한 또 한가지 측면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것인데 대용량 포장의 경우에는 약을 설명한 설명서등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약 사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약사에 의해 복약지도가 이루어지기는 해도 약에 대한 설명이 별지로 또는 포장지에 기록되어 있는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소분포장되어 있고 포장된 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소비자의 약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것으로 보인다.

II. 결론

얼마전 한 회의에서 우연히 일본에서 생산된 의약품 포장을 본 일이 있었다. 개별 호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 포장마다 약에 대한 기본정보, 복용방법 등이 글씨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정도 포장을 해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지 않으나 생각하며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존경심 마저 들고 부럽기까지 한 기억이 있다.

의약품의 소분포장은 분명 생산단가를 높일 것이며 때로는 불필요한 포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꼭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포장단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더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것이지 이를 법제화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물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사용이 빈번한 우리나라에서 포장방식의 변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유통과 관리가 가능해 진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일정한 비용 상승은 적절한 선에서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포장단위의 변경 뿐 아니라 포장지 외부나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의약품 정보도 좀더 소비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어떤 물약병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글씨 크기로 병 전면에 빼곡히 글씨를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뭘 읽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소비자를 무시해도 되는것인지 하는 생각을 그 약병을 볼때 마다 하게 된다.

이번 기회에 포장단위, 포장방법, 포장지의 표시방법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해 보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ko